아버지 하나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삶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닥칠때마다 정말 이세상은 사랑없는 세상이구나라는것을, 자기자신만을 우상삼아 사는 세상이란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니 하나님, 이세상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삶을 살아야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수모와 고난을 감수하고 그 사랑을 전할수 있는 그런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나보다 나의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이서머나교회에 많이 생기게하여 주옵소서

(행 7:54-60)

54저희가 이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것을 보고

56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것을 보노라 한대

57저희가 큰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전까지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죠.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된 선민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전하리라…라고 말씀 하셨지 너희들에게만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 시켜 주는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든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오해하고 있는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무언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내려 오셔야 했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선택해서 오셔야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적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초월적세계와 보이 않는 분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공간속으로 한시대 , 한지경에 떨어지셔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그냥 유대민족중의 한사람으로 오신 것이지 그들만을 하나님이 선택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우리의 이야기지 이스라엘만의 지역적, 어떤 국가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람 말입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기위해 아브라함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너희만을 선민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선민으로 택해진 이유가 너희들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이들으르 이방인이다, 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선민의식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얘기를 한거죠 그리고 요셉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죽은거예요 그거는. 죽인거죠 뭐. 구덩이 파고 거기 쳐 넣었다는 그 자체가 죽인거죠 ..꺼내서 다시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거 자체가..그당시에는 지역에 있는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이었거든요 이방땅에 팔았다는 것은 죽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거의 왕의 권력을 휘둘렀잔아요 너희를 구원한.. 너의 형제들을 구원한것 처럼 예수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팔려 죽으셨지만 그 분이 너희를 구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참 오해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라고 준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먹으라고 준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딴사람들에게 차별의식과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거다.. 그 얘기를 한거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섬기고 있는것이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게 아니라 제도화되고 형식화 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종교를 지금 신앙하고 있는거지..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게 아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게 다 복음이잔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라고 초를 치는게 선지자들의 설교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또한 하나님을 목숨걸어 섬긴다고 하는자들,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세번씩 앉아서 꼭 기도하고.. 착한일 선한일 을 앞 다투고 했던 그들에게,, 니들 다 가짜야 스데반이 확 얘기 해버리는 거죠 이건 역사 아담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본걸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의 힘으로 오를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종교개혁들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라는 우상속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에 떨어져야 할 설교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 자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지적해 주는게 목사의 설교여야 돼요 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그 안에 끼어 넣으면 아..

나는 지금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 할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왜.. 여전히 난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면서 나만 믿고 있으니까… 내 소원 이룰려고 하고 내 새끼만 잘되면 되고.. 전부다 나, 나, 나 잔아요 스데반이 그러죠 기껏 이야기 하면서 너희는 못알아들을꺼야 목이 곧고 몸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지금 이야기 하는데 ..근데 너희들 못알아들을거야..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이런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못알아 들을거야..하면, 니 설교만 알아들어야 진짜냐..이런식으로 스데반이 그러잔아요 못알들을거야..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없거든…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재미 있는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성령을 거슬려…그러죠 성령을 거슬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했다..그래요

이를 갈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당신들 예수 믿는거 아니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권능을 갖고 귀신쫒아내고 병자를 일으킨다고 해보세요 그거 마태복음 7장 가짜들도 다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자 인지 다시 돌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미워죽겠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산상수훈에..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라면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거슬려 욕을 할것이다..라고 얘기하는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요 여러분.. 사람들 비유 맞혀는게 예수 믿는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당신 소원 다 이루어지구요 병도 안나구요 앞날이 창창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이거 사기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예요 아니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도 그런일을 겪을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아담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죄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런거와 영원히 아무 상관 없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가 진짜지 이 세상에서 당신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그러면 사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레어가 며칠전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갖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데.. 아.. 정말 제가 이런 인간들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하나..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종일 했어요 어제 밤새 철야하면서 시도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들 삶이 무슨 해결해야할 일이 생기면 눈알이 뻘개져가지고.. 그냥 어쩔줄 모르고 기도들 열심히 하는데…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분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쯤은 헤아려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는 내심 기대하기를 그 남아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줄줄 알았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그거 예수 안믿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정 잡배들도 다 하는 그런 인정이라는 거거든요..인지상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어떻게 ..어떻게 다니더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앉어있어요 여러분...기독교 신앙이라는게 뭡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다른이에게 일어나는 걸 ..그걸 그냥 마음껏 씹으면서 그냉 그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그사람보다는 …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새끼는 살아있으니까 괜찬아.. 아뇨. 여러분 자식이 죽은거 일수도 있어요 걔가 산거 일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귀새끼 짓 하다가 평생 그런짓 하다가 지옥 갈수도 있는거라니까요 근데 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들 하는 것입니까 클레어가 마지막에 절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내 힘으로 돌아갈수 없을 만큼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어요” 몇주전에 우리교회 왔을때 저하고 xxx가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클레어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돌려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절대 돌아갈수 없는 그런 죄인이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제 마음을 돌려 주실 때 가서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께요..그러고 갔거든요..

이중에 여러분중에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이구나를 가슴 깊이 자각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런 자각, 생각하고 계신분 있느냐구요 성도는 이땅에서 바로 그 자각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의 절정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내 의지로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는자구나..예수붙들어야지.. 착한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에수 붙들어야 사는거구나..이거 아는 사람이 성화의 절정인것입니다

에수의 사랑을 전하세요 예수의 사랑이 뭔데요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두 그냥 이렇게 살다가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이예요 이거 전하는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아..그래 내 딸이 이제 드디어 알았구나 너는 네 힘으로 절대 이 세상에서 절대 행복할수 없고 네 힘으로는 절대 나에게 돌아올수 없다라는 걸 이제 네가 알았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육을 입고 있는 너희의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알겠니..그래 내 딸아 이제 그만 와..하고 데려 갔으면 어떻하실거예요 아니 총맞아 죽은게 뭐 그렇게 대수에요 병걸려 죽은거보다 나은겁니까 그게…죽음은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종류는 딱한가지 밖에 없어요 불에 타 죽던 ..물에 빠져 죽던..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는거예요

시카고 대 화제때 불에 카죽은 목사가 2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뭐 한거예요 저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아.. 이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 어린 것에게 그냥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총을 겨룰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유족들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눈물로 함께 해야 되겠구나..이런 마음은 안되냐 말이에요 그날 밤새 예배당에 앉아서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안듣고 있구나 그냥 여전히 자기들 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일..내 안전.. 내 위로.. 내 체면.. 내평판..내 인기 그것에 쪼금이라도 흠이 되면 울고 불고 개 ㅈㄹ 들을 떨면서 남들이 지금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할정도로 슬픔속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자가 성령을 거슬르는 자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게 하나님의 저주 받은거라 그래요 극명히 대조 되잔아요 성령울 거슬려 그를 때려 죽일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되고 우리가 기대하는것처럼 안되면 그건 꼭 저주 받은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 상처들에 소금들을 더 뿌리고..그게 뭐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이는 자기를 때려 죽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들을 봐라바주면 화가 날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스데반이 바라본건 그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거기를 봤데니까요.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서 게시는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 계시고 하나님만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안보여요 그니까 여기에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건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큰 권능을 갖고 서 계시더라..라는 표현을 보좌 우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엔 전체가 예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 있는건 하늘에 서게신 그 분이 “예수”라고..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름이거든요 그거는..그분이 성자 하나님인데 누구가 그 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권능을 쥔 인간의 대표인 예수가 하늘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날 때려죽이려는 이들이 오히려 고마운거에요 나를 저리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거거든요 이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린애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거 얻어지면 축복받은거.. 아니면 저주 받은거..이게 뭐냐구요 여러분..보이지 않는 하늘만 보는이.. 그들만 성도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니 곧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11: 27)

모세가 애굽을 모든 보화와 재물을 두고 나온것은 예수그리스도 를 위해 받는 능욕보다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그래요 수시로 눈 앞에 딱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이 마음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냥 그가 이 세상 어떤 사건들과 현실속에서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나의 모습 그런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는거 아니예요

우리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다면 그런것이 아닌 내 지체의 아픔에 내가 진짜 가슴 아픈 눈믈로 동참 할수 있는가.. 이게 확인되어야 진짜 교회인거예요 우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이메일들 오는거 보면 사소한거 가지고 저한테 해결해 달라.. 도와달라.. 다 지워버렸어요 제 메일함에 있는 메일을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화가 나서 다 지워버렸어요 수천통 되는거를…. 알면 뭐하냐구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뭐 어떻게 되는데요 가르치는 것도 별의미가 없고.. 여러분 예수와 동행 하셔야 되요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를 더 많이 배우세요 세상의 재미 아니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루 속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는 무슨…더욱더 행복하고 보장된 삶을 이룰려고 잔대가리 굴리면서 사는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먹을거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 그냥..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냐구요 오늘 장례식 내일 하관식..매장하는데 당분간만이라도 남아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오히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충만한자들의 삶이 뭐 이렇습니까 내 안의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욕먹은것처럼 나쁘고 내 마음속의 해결 되지 못한 소원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눈과 귀를 열어서 예수와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올바로 인식하게 해주시고 자각되고 경험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